

‘삼성전자 주식부자’ 전남에 몰려있다

■ 삼성전자 주식 지역별 소유 현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주·명)

구분	1인당 평균	주식수	주주수
전남	15536	639,034,968	41,133
서울	8268	5,044,215,172	610,084
대전	436	27,230,666	62,462
광주	238	12,161,943	51,103
세종	231	3,913,882	16,958
울산	183	8,859,925	48,367
경기	178	108,261,635	609,719
전북	176	8,162,007	46,273
대구	174	16,592,779	95,611
제주	171	2,785,469	16,291
부산	164	19,863,751	120,888
충남	158	10,444,597	65,900
경북	155	11,587,858	74,694
경남	144	14,161,268	98,069
강원	139	5,209,497	37,523
인천	133	14,324,338	107,985
충북	129	6,037,502	46,833
기타	4029	16,868,292	4,187
합계	2771	5,969,782,550	2,154,081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전남 주주수 9만2236명...전남 1인당 평균 1만5536주 전국 최고 액면분할 2018년 8배 급등 이어 지난해 4배 늘어...15년 만에 34배 ↑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국민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9만2236명으로, 15년 전의 34배(3299.8% ↑)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1인당 평균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1만5536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삼성전자 주주는 광주 5만1103명·전남 4만1133명 등 9만22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2만3440명(광주 1만3087명·전남 1만353명)의 4배(293.5% ↑) 수준이다.

전국 주주 215만4081명에 대해 광주는 2.37% 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은 1.90%를 차지했다. 광주지역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1216만1943주로, 1인당 238주 가량을 지니 셨다.

전남 보유 주식은 6억3903만4968주로, 1인당 평균 보유 주식이 1만5536주에 달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 주주 수는 광주 10위·전남 14위 등 하위권에 들었지만, 전남 주주들이 지닌 주식 수는 월등히 많았다.

전남 1인당 보유 주식 수는 전국 평균(2771주)의 6배 수준에 달했다. 2위 서울(8268주)과는 7200주 넘게 차이가 났다.

전남의 총 보유 주식 수는 서울(50억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광주 1인당 주식 수는 전남, 서울, 대전(436주)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했다.

예탁결제원이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05년 광주·전남 삼성전자 주주 수는 광주 1734명·전남 979

명으로, 3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15년 전 당시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도 74주에 불과했다.

이후 ▲2006년 광주 2361명·전남 1644명 등 4005명 ▲2007년 광주 2635명·전남 2237명 등 4872명 ▲2008년 광주 2847명·전남 2338명 등 5185명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09년에는 광주 2269명·전남 1727명 등 3996명으로 1200명 가량 줄더니 ▲2010년 광주 2782명·전남 1886명 등 4668명 ▲2011년 광주 3761명·전남 2025명 등 5786명 ▲2012년 광주 3098명·전남 1738명 등 4836명 ▲2013년 광주 2980명·전남 1850명 등 4830명 ▲2014년 광주 2387명·전남 1492명 등 3879명 ▲2015년 광주 2145명·전남 1353명 등 3498명 ▲2016년 광주 1264명·전남 706명 등 1970명 ▲2017년 광주 2635명·전남 1773명 등 4408명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을 단행한 지난 2018년에는 광주 1만8800명·전남 1만4457명 등 3만3257명으로, 전년의 8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듬해에는 2만3440명(광주 1만3087명·전남 1만353명)으로, 1만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식 투자 열풍에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늘면서 전년의 4배 수준인 9만2236명으로 불어났다.

한편 올해도 삼성전자 투자자가 급증해 업계에서는 현재 소액 주주가 5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범농협 임직원 50명, 농촌마을 일손 돕기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 신안농협 등 범농협 임직원 50명은 6일 신안 퍼플섬을 찾아 마늘종 제거 일손을 돕고 마을회관에 냉장고를 기부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를 포함한 범농협 7개사 임직원이 6일 신안 마늘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펼쳤다.

이날 총 50명의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했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 신안농협, 농협 전남노조, 농협은행 목포 지점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소속이다.

이들은 신안 퍼플섬을 찾아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정화를 한 뒤, 마늘종 제거를 도왔다. 마을회관에 냉장고를 기부하기도 했다.

농협은행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봉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농·축협 155명 공채...10일까지 접수

학력·전공 제한 없는 블라인드 진행

올해 전남에서 농·축협 신규 직원 155명을 공개 채용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021년 상반기 전남지역 농·축협 신규 직원’ 지원 접수를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규모는 155명이다.

지난 3일 채용 공고를 낸 뒤 10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는다.

앞으로 필기시험(6월13일)과 면접(6월25일)을 거쳐 오는 7월15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전형은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공고일(3일) 전일 기준으로 응시자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응시 가능 지역으로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누리집(nonghyup.com)과 채용 전문업체 잡코리아(oras.jobkorea.co.kr/nhrecruit)를 참조하면 된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한파 속에서 이번 공채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년 농협을 이끌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비아농협, 도농상생 발전 위한 ‘농촌농협 자금’ 지원

임곡농협 등 3곳에 1000만원씩

광주 비아농협이 주변 농촌농협과 ‘도농상생 발전 협약’을 맺고 균형 발전을 위한 자금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비아농협은 지난해 말 화순 동북농협, 장성 진원농협, 광주 임곡농협과 ‘도농상생 발전 협약식 및 농촌농협 자금지원 전달식’을 잇따라 열었다.

전달된 농촌농협 지원자금은 각 1000만원이다. 지원금은 농촌농협 농업인 실의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홍식 비아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산물의 소비부진에 따른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지원으로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조성돼 상생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아농협은 올해까지 4년 동안 농촌농협과 상생 발전을 위해 도농상생 농기계 구입자금, 농촌농협 농업인 복합비료 지원사업 등으로 1억원 상당을 지원해왔다. 농협중앙회의 도농상생 기금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최고 7000만원 보증 전남신보, 신한은행과 협약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전남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7000만원 한도 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이날 신한은행과 ‘2021 신한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한은행은 전남신보에 3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전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36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보증요율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남도 보증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고정 0.8%로 우대 적용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흥댐 거주민 150명 ‘수자원공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장흥댐 인근 고령 농업인 150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서남권지사는 최근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와 ‘장흥댐 주변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는 전년보다 30명 늘어난 150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소득 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참가 대상은 장흥군 5개 읍·면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들은 오는 6월부터 석 달 동안 댐 주변 환경 개선, 마을 환경 정화, 경로당 지원 등을 펼친다. 정찬 전남서남권지사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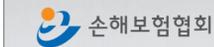


정하태(왼쪽)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고객지원부장이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와 ‘노인 일자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78.74 (+31.37)
↑ 코스닥	969.99 (+2.79)
↓ 금리(국고채 3년)	1.140 (-0.018)
↑ 환율(USD)	1125.80 (+3.20)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